연꽃처럼 깨끗한 마음 잃지 말아야



新 불교사자성어

⑫ 처염상정(處染常淨)

'처염상정(處染常淨)'은 '오염된 곳, 더러운 곳에 있지만 항상 깨끗하다'는 뜻이다.

혼탁한 세상이다.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는 세상이다. 이해관계, 견해 차이, 증오, 욕망과 분노 등으로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세에는 투쟁을 일삼는 '투쟁뇌고시대', '오탁악세(五濁惡世)'가 도래한다고 말씀하셨다. '처염상정'이라는 말은 오탁악세를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고 '연꽃처럼 깨끗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임무를 맡았을 때, 집단의 일원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누구나 순수하다. 대체로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그 집단 속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섞이며 물이 든다. 나중에는 자신이 더러워진 줄도 모른다. 썩은 냄새가 푹푹 나는 탕아(蕩兒)가 되어 버린다.

보조국사(1158~1210)가 지은 〈계초심학인문〉에는 "모름지기 나쁜 사람은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遠離惡友 親近賢友)"고 했는데, 인간은 성선(性善)보다는 성악(性惡)에 가깝기 때문이다. 생선 장사를 하면 몸과 옷에 비린 냄새가 배일 수밖에 없고, 먹물을 가까이하면 먹물이 묻을 수밖에 없다(近墨者黑).

그런데 간혹은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 있다. 악(惡)이나 통속적,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는 바탕이 고귀한 사람, 마음이 청정한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약삭빠른 속인들은 이런 사람을 비웃는 경우가 많다.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다. 불교에서 연꽃을 짝사랑하는 까닭은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피지만 물들지 않고, 뿐만 아니라 꽃과 향기가 모두 아름답기 때문이다. 연꽃이 탁한 곳에 있어도 오염되지 않는 것처럼[處染常淨] 중생들도 진흙탕 같은 사바세계(세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물들지 말라는 뜻이다. 본래 뜻은 진리의 영역인 부처의 세계(불성), 본성, 불성, 진여는 오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연꽃을 상징하는 경전이 우리 불자들에게 친근한 〈묘법연화경(법화경)〉이다. 산스크리트 명으로는 '삿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Sadharma pundarika sutra)'인데, 푼다리카는 '백련(白蓮)', '흰 연꽃'을 뜻한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진리인 일승(一乘), 일불승(一佛乘)에 비유한 것이다.

〈화엄경〉 이세간품에는 "(보살이) 세간에 머무르되 허공과 같이 걸림이 없는 것이 마치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다(處世間如虛空 如蓮花不着水)" 또 "연꽃에 물이 묻지 않는 것처럼, 마음은 본래 청정하여 번뇌를 초월해 있다(如蓮花不著水, 心清淨超於彼)"고 하여, 보살은 세속에 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찬탄한다.

돈 많은 부자는 겸손하기가 어렵고, 힘센 사람은 주먹 참기가 어렵고, 권력자는 횡포 참기가 어렵고, 미남과 미녀는 바람기 참기가 어렵고, 지식 있는 자는 오만함을 참기가 어렵고, 실력이 있는 자는 과시를 참기가 어렵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겸손한 것은 그가 인격자이기 때문이다.

연꽃의 한 종류라고 할까, 수련(睡蓮, 잠잘 睡)이 있다. 나는 이 글을 쓰기 전만해도 물 수 자 '水蓮(수련)'라고 생각했다. 물에서 자라기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 '수'가 아니고 잠잘 '수'의 수련(睡蓮)이다.

수련(睡蓮)은 저녁때가 되면 꽃잎이 봉우리처럼 오므라든다. 마치 수면을 취하는 것처럼 보여서 옛 사람들은 '잠을 자는 연꽃(睡蓮)'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주 매력적인 이름이다. 수련은 한낮이 되면 다시 활짝 피기 시작한다고 한다. 연꽃과 수련의 다른 점은 꽃잎에서도 구분된다고 한다. 보통 연꽃의 꽃잎은 물 위로 쑥 올라와 있는데 수련의 잎은 물 위에 둥둥 떠 있다.

중국 북송시대의 유학자 주무숙(周茂叔:주돈이. 1017~1073)은 연꽃을 매우 사랑하여 '애련설(愛蓮說)'을 지었다(고문진보). 그는 "내가 연꽃을 사랑하는 것은 진흙 속에서 나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진흙이라면, 거기에 물들지 않는 연꽃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眞金 알려면 불속에서 봐야



격절록 강설

⑫ 백장불자화 4

[評唱 3]

且打葛藤 引相似一二. 不見 丹霞訪龐居士 問靈照云 "居士在否" 靈照 斂手而立. 又問 "居士在否" 靈照攜籃便行. 僧又問靈雲 "佛未出世時如何" 雲竪起 拂子. 又問 "出世後如何" 雲亦竪起拂子. 又問雪峯 "佛未出世時如何" 峯竪起拂子. "出世後如何" 峯抛下拂子 僧禮拜 峯便打. 到這裏 棒頭有眼明如日 要識真金火裏看.

(고인이 언제 제멋대로 쓰는 것을 긍정했는가) 자, 비슷한 것 한두 가지를 인용해서 말해보겠다.

보지 못했는가!

단하(丹霞)가 방 거사를 찾아가서 영조(靈照)에게 물었다.

"거사는 계시는가?"

영조가 두 손을 마주잡고 공손히 섰다.

또 물었다.

"거사는 계시는가?"

영조가 대바구니를 들고 바로 가버렸다.

어떤 스님이 영운(靈雲, 영운지근)에게 물었다.

"부처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영운이 불자를 세웠다.

또 물었다.

"부처가 세상에 나온 후에는 어떻습니까?"

영운이 역시 불자를 세웠다.

또 설봉(雪峯, 설봉의존)에게 물었다.

"부처가 세상에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설봉이 불자를 세웠다.

또 물었다.

"부처가 세상에 나온 후에는 어떻습니까?"

설봉이 불자를 던져버렸다.

스님이 절을 하자, 설봉이 바로 쳤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방망이 끝에 눈이 있어 밝기가 마치 해와 같으니, 진금(眞金)을 알고자 하면 불속에서 시험해 보라(棒頭有眼明如日 要識真金火裏看)!

---

*단하천연(丹霞天然, 739~824)

당대(唐代)의 스님. 청원문하.

마조도일을 친견하고 석두희천 스님의 처소에서 풀깎는 일을 맡아보면서 3년 동안 정진하여 도를 이룸. 후에 남양 단하산에 주석하자, 학도 300여 명이 운집하여 대원을 이룸. 당 장경 4년 6월에 입적. 세수 86. 시호는 지통(智通)선사.

*방 거사(龐蘊, ?~808)

마조도일의 문하. 자는 도현(道玄).

당나라 형주 형양 사람으로, 대대로 유학을 업으로 했지만 진로(塵勞)를 싫어하여 호북성 양양으로 이사한 후 대바구니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고 함. 석두희천을 만나 선지를 얻은 다음, 마조도일에게 2년간 참학함. 일생을 승려가 아닌 거사로 마쳤지만 독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얻어 진단(震丹, 중국)의 유마거사로 불림. 유명한 공안으로 '호설편편(好雪片片)'이 있다. 시를 잘 지었고, 저서로 '시게(詩偈)'가 있다. 양주 자사 우적(于頔)을 만나 입적할 때도 그의 무릎을 베고 입적했다고 함.

*영조(靈照)

방 거사의 딸이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⑫ 믿음 편 12

미륵은 희망의 아이콘

현실을 살아내기 힘들 때, 사람들은 미래를 꿈꾼다. "언젠가 행복한 날이 오겠지" 하면서 말이다. 이러한 인간의 소망을 잘 읽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주목받는다. 우리 역사에서는 궁예와 견훤이 그랬다. 그들이 대중에게 희망을 심어주면서 내세운 모델은 다름 아닌 미륵이었다. 왜냐하면 미륵은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는 보살이자 부처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미륵은 희망의 아이콘이었던 것이다.

모든 부처들이 성불하면 자신만의 정토를 건설한다는 것이 대승불교의 관념이다. 예컨대 서방의 아미타불이 극락정토를 장엄했다면, 동방의 아촉불(阿閦佛)이 건설한 묘희국(妙喜國)도 있다. 묘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정토라는 뜻이다. 미래의 부처인 미륵불 역시 자신만의 청정한 국토를 건설하는데, 이를 용화세계(龍華世界)라고 한다. 저마다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모두 괴로움이 소멸되고 즐거움이 가득한 정토를 그리고 있다. 그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이 정토신앙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미륵(彌勒)은 범어인 마이트레야(Maitreya)를 옮긴 말이다. 본래 자비와 우정을 뜻하기 때문에 자씨보살(慈氏菩薩), 혹은 자비보살로 불리기도 한다.

〈미륵하생경〉에는 미륵이 인도의 바라문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붓다의 제자가 된 사연을 전하고 있다. 미륵은 붓다의 지도 아래 열심히 정진하다가 스승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授記)를 받고 지금은 도솔천에 머물고 있다 한다. 미륵보살이 머물고 있는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곧 상생신앙(上生信仰)이다.

이와 달리 56억 7천만년이 지난 다음 미륵불이 이 땅에 내려와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하고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하생신앙(下生信仰)도 있다. 어찌 보면 미륵신앙은 기독교의 종말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정토신앙과 종말론은 구원의 대상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신을 믿는 자만 구원을 얻지만, 미륵신앙은 그와 관계없이 모든 중생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중생구제라는 대승불교의 이념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미륵신앙 역시 아미타신앙에서 보인 것처럼 사실보다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 미륵정토는 먼 미래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이며, 따라서 내 마음이 곧 정토(唯心淨土)라는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정토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우리의 현실이 된다. 미륵사 창건 설화에서 이러한 면을 엿볼 수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백제 무왕의 왕비인 선화 공주가 연못에서 미륵 삼존불을 친견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미륵사를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물론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택왕후(沙宅王后)의 발원으로 미륵사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지만, 선화공주 설화에 담긴 선인들의 사유마저 놓쳐서는 안 된다.

비록 설화지만 당시에 미륵불이 출현했다는 것은 미륵정토는 먼 미래의 정토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정토라면 이 땅을 청정하게 가꾸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널리 알려진 팔관회(八關會)나 백고좌회(百高座會) 등은 본래 이 땅을 정토로 장엄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불교의례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무외인(施無畏印)과 여원인(與願印)의 수인을 하고 있는 미륵불을 많이 볼 수 있다. 시무외인은 중생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고 위안을 준다는 뜻으로 주로 오른손을 어깨 높이까지 올리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여원인은 중생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왼손을 내려서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미륵반가사유상은 어떻게 해야 중생들의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제 미륵의 고민을 우리 중생들이 조금 덜어주면 어떨까? 각자가 주체가 되어 이 땅을 정토로 가꾸면서 말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제 13 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9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일시 :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